

## 군중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중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최근 불교 종파의 한 지류종교가 군중을 파송하겠다고 하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긴장과 갈등을 조성한다. 군중 제도를 지나치게 자기 종교집단의 포교의 장이나 확장의 기회로만 이용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파괴할 수 있다. 현대 탈이데올로기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우리 사회는 군대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우리는 모순된 현실에 처하여 있다. 세계는 갈수록 종교가 번성하고 종교가 국제정치를 움직이는데도 한국 군대

- 약력 : • 미국 풀러신학대학교 선교학 박사  
• 영국 웨일즈대학교 철학박사  
• 전 고신대학교 학장  
• 현 고신교단 총무

는 비종교화의 조짐을 보인다. 전후 이라크에서 지금 시아파 지도자들은 이라크를 이란 식의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워싱턴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sup>1)</sup> 그런데 우리 군대는 군중 병과를 폐지하고 과거 식대로 측탁제도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야말로 기독교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현대 국제사회는 갈수록 종교간의 갈등이 심하여 문명충돌론 논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교갈등이 심화되는 오늘의 세계적 현상을 우려한 한스 쾅은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구라파 사회의 종교 평화적 공존을 모델로 제시한다.<sup>2)</sup> 그 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종교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은 종교다원화의 사회였는데 군중 병과의 종교경쟁으로 인하여 다원화가 깨어질 판이다. 이 시대는 문화와 종교의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독점사상을 배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평등이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듯 종교집단도 사회를 파괴하거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공동선을 추구할 때 생존권과 스스로 확장의 권리를 지닌다. 특히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려서 자기세력을 확장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종교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종교는 정치나 물질과 결탁할 때는 대체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영적 힘을 상실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모든 종교들은, 특히 군중을 파송한 종교단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화란의 종교학자 van der Leeuw는 종교는 상호 만남과

1) Douglas Jehl, "Pro-Iranian Iraqi Muslim Group Lobbies for Washington's Favor," *The New York Times*, May 7, 2003: 2.

2) Hans Küng,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London: SCM Press, 1990), 74-75.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교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종교가 선교, 포교 혹은 전도를 중단할 때는 그 종교는 자기확신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군대에서 군종을 파견한 종교들이 선교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군종 병과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군종 병과가 자기 종교의 선교의 장이 되고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군복을 벗고 포교나 선교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세계적이면서 보편적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전통종교의 지류 종교가 군종 장교를 파송하려고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면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종교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의 군종 제도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 1. 군종 제도의 기원

한국에서 군종 병과는 먼저 기독교 군목에서 시작하는데, 군목이라는 영어 단어 chaplain은 한 존경받는 목사의 옷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과 라틴어 차펠(chapel), 즉 장소를 뜻하는 의미와 관련되었다는 설이 있다. 전자의 학설에 대한 내용은, 중세 프랑스의 메로빙가와 카롤링가 왕조(5-8세기)에 마틴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거지에게 준 보잘 것 없는 겹옷이 군대에서는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짧은 겹옷이라는 단어 cappa 혹은 capella에서 군목이라는 단

3) G. Van der Leeuw, *Phenomenologie der Religion*(Tubingen: J. C. B. Mohr), 50.

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군목이란 영어 chaplain은 원래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에 자기들의 기지를 설치하고 이 안에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를 chaplain이라고 하였다. 중세기에는 귀족들이 자기의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의미한다. 즉 집단이나 기관의 목사를 의미한다.

군종 병과의 시작은 전쟁과 종교의 관계에서 시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격언이 나왔는데, 전쟁 앞에서는 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며 신에게 기도한다. 금번 이라크전에서 미군병사들은 진지하게 기도하였다고 한다. 군목들이 대단히 바빴다. 다른 종교들도 출전할 때는 대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였다. 구약에서 모세나 사사들은 예언자, 제사장, 지휘관 노릇을 하였다.

전쟁역사에서 최초의 군종 제도는 B.C. 7세기 시리아 군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군목제도의 근거를 구약 성경에 둔다.<sup>5)</sup> 구약에서는 전쟁은 철저히 신에 속한 것이다. 즉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와의 싸움이라고 하였으며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와의 전쟁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구약시대에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민족 간의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들 신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었으며, 이는 군사의 수나

4) 하계우, “한국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당면과제 연구”(1987년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12.

5) 강태광, “세계 군종 제도의 기원과 역사,” 『군복음화보』 2000년 5월 31일자, 4면.

무기의 질에 의해서가 아닌 영적 능력에 의해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었다.<sup>6)</sup>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은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 발생하는 현상을 두고서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비난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도 전쟁의 종교로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정치학자 윌겐마이러는 “히브리 성경 전체는 위대한 왕들의 수많은 군사적 침략을 말하고 있다. 신약에는 전쟁의 외침이 없지만 그 후의 기독교회 역사는 사실상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하였다.<sup>7)</sup>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을 통하여 나타났다. 즉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이시다. 사사기 7장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군목제도는 구라파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초대교부들은 대체로 전쟁을 부인하였으나 기독교가 사회 전체에 수용되어 세속권력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개인적인 폭력과 정의의 전쟁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거스틴은 군주가 질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기독교 성직자들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9세기 말 프랑크 왕국의 분열 항쟁 과정에서 무려 10명 이상의 사제가 전사하였다고 한다.<sup>8)</sup>

그러나 군목제도는 서구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칭기스칸은 일찍이 기독교와 접촉을 하였고 그가

6) 노병천, 「성경의 전쟁사」(서울: 도서출판 좁은문, 1997), 35.

7) Mark Jurgenmeyer,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157.

8) 대영백과사전, “전쟁” 편을 참조할 것.

정복한 소수 부족들 중에는 상당수가 기독교를 집단으로 영접하였다. 이 영향으로 칭기스칸의 군대 안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병영에는 기독교의 예배처소까지 있었다. 이 예배처소는 작고 그 밑에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대한 병영 안에는 이동식 예배처소가 800개가 되었다고 한다. 칭기스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장군들 가운데도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sup>9)</sup> 임진왜란 때 한국에 온 일본 군대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서 세스페데스가 종군목사로 한국에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서구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도 군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5%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슬람 군목과 기독교 군목을 두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같이 이슬람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된 나라는 군대가 아예 이슬람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 2. 미국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

한국 군종병과는 미국 군종 제도의 모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북부 양군은 독립전쟁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북부군의 전쟁성(War Department)을 보면 개전 초기에 한 연대는 한 군목을 임명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자격은 안수 받은 목사로 제한하였다. 곧 이어서 링컨 대통령에게는 병원에도 군목이

9) 허대전, 「초대교회와 동방선교」, 홍치모 역(서울: 바른신앙, 1991), 118.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1862년 5월 의회는 상설병원에  
는 반드시 한 명의 군목을 두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격 없는 군목으로 인하여 불평이 제기되었  
다. 그래서 군목은 반드시 교단으로부터 적어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미  
국의 모든 교단들이 육군과 해군에 군목을 다 파송하였는데,  
감리교는 무려 5백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연대 교회가 세워  
지고 군목이 한 부대에서 장기 근무를 할 경우는 정기 예배  
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군목은 부흥회까  
지도 가질 정도였다. 뉴욕의 한 연대교회에서는 연대장이 천  
막을 제공, 30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여 100명의 결신자를 얻  
었다. 군목들의 활동은 예배인도 외에 개인상담과 성경과 기  
독교 문서를 배포하였다. 남부군은 북부군보다 종교활동이  
더 열정적이었다. 리와 잭슨 장군은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으  
로 군목들의 활동을 잘 지원하였다. 남부군은 야간에도 부대  
에서 찬송소리와 복음송이 들리는 것이 예사였고 술 취한 장  
병도 아주 드물었다는 것이다.<sup>10)</sup> 1863년에서 64년에 남부 조  
지아주 지역의 부대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한 군목의  
일지는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한다.

1863년 5월 17일 오전 10시 한 장로교회에서 설교하였는데,  
강당은 장교와 사병들로 가득 찼고 매우 진지하였다. 오후 3시  
에는 게이트 대대에서 설교하였는데 아주 좋았다. 그 대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5월 19일에는 존슨 대대에서 설교를 하

10) William Warren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New York:  
Harper & Row, 1950). 317

었는데 30-40 명의 병사들이 올었다...5월 22일 리들 제너럴  
대대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회심하였  
다.<sup>11)</sup>

### 3. 도전 받는 기독교 국가 미국

미국 군목제도는 초기에는 기독교가 독점하였으나 남북전  
쟁 때 이미 소수의 천주교가 군목을 파송하였고 심지어 유대  
군목까지도 있었다. 그 숫자가 적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  
만 정교 분리의 미국은 종교 다원화 사회로 다양한 종교들이  
군목을 파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단은 물론 이슬람까  
지도 군목을 파송하였다. 9.11 테러는 문제의 발단이 된다.  
9.11 테러 때 미국 군대에 근무하는 25명의 이슬람 군목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었다. 이유는 빈 라덴은 미국을 알라 신  
의 대적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중동에 있  
는 이슬람 학자들에게, 이슬람 군목으로 알라신에 대한 충성  
과 미국에 대한 충성이 대립하느냐고 질의를 하였다. 물론 이  
슬람 학자들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지금 미  
국의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과 미국에 대한 충성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이라크 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동료병사를 살해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시켰  
다. 무슬림인 이 병사는 자기 군인들이 동료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느낀 나머  
지 동료병사를 살해하고 말았다.

11) Sweet, 318.

미국 사회는 기독교가 아직도 사회를 지배하는 주류적 가치관이며 윤리관이 지배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동양 이민 흡수로 종교다원화 사회로 발전한다. 미국은 인종 전시장이면서도 종교 전시장이다. 이것이 미국 군복 제도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주어 위에서 언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철저히 국교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박해를 무서운 죄악으로 증오하였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믿으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특히 존 로크의 종교 자유론은 미국헌법에도 강한 영향을 주었다. 즉 모든 종교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로교가 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종교의 지나친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관 및 세계관이 도전 받고 있다. 그 동안 기독교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적인 가치관이 되었다. 금번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는 신보수파는 바로 원리주의 기독교 사상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반전 사상과 전세계를 휩쓰는 반미, 반기독교 정서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사상가들도 미래의 미국은 종교다양성이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데, 이유는 미국은 너무 많은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 같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질화 현상을 초래, 혼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도 미국 국기에 대한 선서 거부에서 나타난다. 국기 선서에는 ‘하나님 아래서(Under God)’라는 단

어가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한 의사 겸 변호사가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 왜 하나님 이름으로 선서를 하느냐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그는 승소하였다. 그러나 미국 상하원은 만장일치로 이 헌법 결정을 거부하였다.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4. 서구 군복제도의 신학적 근거

고대사회도 전쟁과 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전쟁 때는 대체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군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중대한 훈련을 눈앞에 두고 비기독교 신자 지휘관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많이 있었다.

고대 다른 종교의 군대도 성직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군종병과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서구 기독교였다. 중세 시대 서구 기독교가 군복 제도를 발전시킨 주요한 신학적 원리는 중세 서구는 한 국가, 한 종교의 원리에 의하여 기독교 국가(Christendom)로서 독점적 권리를 누렸고, 종교 개혁 이후에는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데 있다고 본다. 전자에 대하여 설명하면, 중세 천주교회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배타적 구원론 사상은 천주교의 절대라는 신앙으로 선교를 하였고 타종교에 대하여는 정복적 자세를 취하였다. 어거스틴은 이방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서 서구 기독교가 식민주의를 실천한 신학적 근거가 된다. 하나님 신앙이 전쟁에 성직자를 대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전쟁 때 전투에 서는 십자기와 장병들의 휘장이나 십자 문장은 승리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 공격을 시도한 몽골 군대의 복장에서도 이미 십자 문장이 있었다고 한다.

기독교가 군목제도를 먼저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구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신앙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universal religion)이면서도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종교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민족주의를 진작시켰다. 종교개혁의 성경번역은 민족 언어 혹은 인종 언어를 부활하게 하였으며,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였다.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서구에서도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신앙과 애국은 조화관계이지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서구 역사에서 용감하게 싸운 이들 가운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서구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데서도 잘 나타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근대적 민족주의는 서구 기독교가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sup>12)</sup>

비서구가 서구에 뒤떨어진 부분은 바로 민족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데에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서구를 모방하여 민족주의를 제일 먼저 발전시켰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회들은 민족주의보다는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일차적 공동

12) 이 주제에 대해서는 Max Weber의 *Hinduism and Buddhism* 결론 부분에서 그는 동양종교는 민족주의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체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통합하여 국가를 이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종과 종교 갈등이 심각한 상태이다. 아프리카는 인종청소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이다. 수단은 13부족이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정상적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후 이라크 역시 미국은 물러가라고 시아파들은 데모를 하지만 막상 인종과 종교의 원만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제각기 소리를 내며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인다. 19세기 이전만 하여도 일본 역시 봉건영주 사회로 서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다가 서구로부터 근대적 민족주의를 도입하였다. 종교개혁은 근대적 민족주의의 이념적 바탕이 되어졌다. 실제로 루터의 두 칼의 교리는 이것을 잘 입증한다. 하나의 칼은 국가라는 칼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속하는 말씀의 칼이다. 이 점에서는 루터주의는 칼빈주의보다 민족주의 정신이 더 강하였고 칼빈 역시 정부, 교회, 가정은 신이 세운 제도(divine institute)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폐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본질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양립하는 경우는 공산주의, 독재체제 혹은 반민주국가이다. 일본의 경우 노일 전쟁과 청일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앞장섰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예수에 대한 충성을 함께 강조한 대표적 인물은 우치무라 간조이다. 그는 “나는 두 J를 사랑한다. Jesus와 Japan 어느 것이 먼저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 5. 존폐의 위기에 처한 한국 군대 군종제도

한국의 군중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군중병과의 시작은 1948년 “조선경비대” 시절에 신자 병사들이 민간교회와 협조하여 부대에서 종교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군 지도자들 중 선진국의 제도를 알고 군대 내에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하여 군중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자들이 있었다. 강문봉 씨는 미국 군사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는 “교회와 댄스 홀”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의 손원일 제독이 정달빈 목사를 초청, 종교활동을 하게 한 것이 군선교의 효시라고 본다. 그리고 장병들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종교 활동 지원을 호소하였다.

군중병과의 본격적 시작은 동란 때 한 카투사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올린 것이 주효하여 군중 제도를 실시하였다. 군중 병과의 직접적 목적은 정신무장 강화와 신앙심 함양, 사기진작이었다. 당시는 군복을 입지 못한 무보수 촉탁이었다. 당시 군중 제도의 목적은 기독교는 철저히 애국하는 종교라는 확신에서 시작한 것이다. 촉탁시대에서 다음은 문관 신분으로 일하는 때가 있었다(1952년 6월에서 1954년 12월).

그러나 1968년 불교가 군승을 파송하기 시작함으로 한국의 군중병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군복제도에서 군중제도로의 용어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독주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위주의 인격지도 교육이나 상담 등 군중활동이 도리어 서서히 위축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불교는 군중병과에서 기독교의 선교정보나 원리를 배워서 불교를 상황화, 근대화하며 포교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는 군대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반공이념과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 정부로 인하여 독점적 위치에 있었다. 처음부터 천주교 신부들도 촉탁으로 참여하였지만 기독교가 사실상 독주하였다. 1960년대 후반 월남전으로 불교가 군승을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세 종교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보이지 않는 종교갈등도 일어났다. 군사정권 때는 일부 진보적 기독교의 반정부 운동으로 인하여 군목들이 반정부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래서 진보적 교단은 군선교가 활발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진보적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교적 관용적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군에 적합하지 않는 종교였는지 모른다. 여하튼 반공이 중요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된 당시로서는 기독교 군목들은 할 일이 많았었다. 제도적으로 중대 단위의 인격지도를 통하여 신앙을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무신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독교만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었음을 부각시켰고,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여졌다. 한신 장군의 “정신전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이러한 배경에서 호소력이 있었다. 그는 군중 병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한 군 지도자였다.

하지만 반공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퇴장당하고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이데올로기 진공의 정치적 상황은 군중 병과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일부 군 지도자들은 군중 병과를 폐지하고 대신 각 종교가 촉탁으로 성직자를 군에 파송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였다는 미확

인 정보가 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종교의 과열 경쟁도 군종 무용론을 부추기는지 모른다. 지금 군목들은 병사들의 군대적응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정도이며 인격지도 교육은 사라진 것 같다. 과거에 있었던 6.25 정신교육이나 강좌도 사라지고 있다. 물론 외부의 저명인사 종교강연도 사라지고 있다. 금년 6월에 군의 변화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과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젊은이들의 인터넷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탈이데올로기적, 탈윤리적인 우리 시대는 군대에서 도덕교육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의 한 하부 종교가 정치력을 동원하여 자기 종교의 성직자를 파송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50년대 기독교가 군목을 파송할 때 국가로부터는 “정신 전력적 요청과 기독교의 선교적 요청이 상호 작용을 하였다. 단순히 기독교가 정부에 군목제도를 구걸한 것이 아니다. 종교가 정치를 동원할 때는 벌써 그 종교는 순수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회나 국가가 자기 종교를 필요로 하도록 앉아서 요청을 받을 때 신중하게 응답하는 것이 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이 점에 관하여 한국의 한 정치학 교수는 한국의 종교는 초자연적 가치관을 정치와 사회에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종교의 이권이나 이익을 사회와 정치에 요구함으로써 종교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 1) 한국 군종 제도의 시대적 발전과정

하재우는 한국 군종제도의 시대적 발전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한다. (1) 무보수 촉탁시대 (2) 문관시대 (3) 독립활동시대 (1955-1965) (4) 특수 군선교시대 (1965-1968) (5) 신앙전력화시대(1968- )이다.<sup>13)</sup>

(3)은 군목제도가 정식 군인으로 신분을 가지고 정식 병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4)는 군목도 월남전에 참여하며 올진 공비 사건으로 군목이 국가안보와 정신무장 강화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에 불교도 월남전으로 군승을 파송하게 된다. 군승 파견은 당시 기독교가 군선교에 열심이 식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불교는 집요하게 군승 파송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앙전력화는 한신 장군의 공을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 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자부한다. 여기서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내무반 신자화 운동과 합동세례식이 한국 군대를 휩쓸었다. 이것은 외국에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전군 신자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제기되었다. 첫째는 군에서 3종교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세례 받은 이방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다. 합동세례는 원래 중세 천주교회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시행한 것이다. 왕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가 되는 기독교 독점 시대에 왕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집단개종을 거부하고 개신교 선교는 철저히 개인전도 위주와 세례였다. 그러나 백가브란과 피켓이 인도에서 부족 단위의 집단 개종을 실천하였다. 1930년대 초기 박형용 박사는 『신학난제선평』에서 집단개종을 비판한다. 하지만

13) 하재우, 상계서, 32면 이하 참고할 것.

소규모로, 제자화 교육이 가능하다면 집단개종을 반드시 거부할 필요는 없다. 개인 단위의 세례라도 증생한 신자를 보장하지 못한다.

## 2) 군중병과의 미래 방향

우리는 군대 내 종교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군중병과가 유지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안으로 먼저 우리는 군대를 공격적 선교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종교도 공격적이 되게 한다. 종교간의 공존을 잘 유지하는 선에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군대는 보수교단 군목들도 종교대화 신학과 종교신학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군진신학은 본문과 상황의 접목으로 혹은 현존 신학(presence theology)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sup>14)</sup> 군중병과의 효과적 존속에 기여하도록 불가피하게 보수적 기독교도 종교신학의 수립이 시급하다.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은 종교갈등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타적 기독교가 지배하는 서구, 특히 미국에서 보듯이 종교다원화 사회를 발전시켰고 복지와 민주화를 발전시켰음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전군 신자화 운동과 군선교연합회의 비전2020 실천운동의 전개에 있어, 종교경쟁의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기독교의 전군신자화 운동은 불가피하게

종교경쟁을 유발하였다. 한마디로 한국 불교는 기독교로부터 많은 것을 도입, 상황화를 하였다.<sup>15)</sup> 원불교가 이 점에서는 선배인지는 모른다. 원불교의 의식과 복장 등은 과거 기독교 문화의 차용이다. 조계종이 1980년대에 와서 공격적 불교로 변신한 것은 아시아 불교와 연합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비교종교학 이론에 의하면 종교가 상호 만나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에서 기독교가 항상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종교혼합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중국의 경교나 통일교는 대표적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힌두교 불교 등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의 선교로 말미암아 근대화하였고 선교를 강화하여 도리어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힌두교나 스리랑카 불교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스리랑카 불교의 YMBA는 좋은 실례이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더불어 포교원을 신설하고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조계종도 『불교포교론』에서 “종교의 생명은 포교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강조한다.<sup>16)</sup> 기독교의 합동 세례, 특히 논산훈련소 신병 세례를 두고 타종교는 솔직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제 기독교는 지혜로운 경쟁은 불가피하면서도 외형적 선전이나 전시보다는 신앙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신자화 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정기스칸 이후에 몽고는 부족단위의 집단개종이 있었다. 그러나

14) 박상철,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목회학박사학위논문: 1992), 69.

15) 이 문제에 대하여는 James Huntley Grayson, “Cultural Encounter: Korean Protestantism and Other Religious Traditions,” International Bulletins of Missionary Research, April 2001: 66-68 참조할 것.

16) 한장섭, 『불교포교론』(서울: 불교대학교계편찬위원회, 1996), 25.

19세기 개신교 선교 이전에 몽고에는 한 명의 신자도 없었다. 헌신적인 지도자와 교회 및 성경의 부재는 기독교회의 건물 흔적이나 유물은 있어도 신자는 없었다.<sup>17)</sup> 특히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렵지만 기존 신자를 제자화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선교적 상황이다. 제자화도 전도이다. 특히 종교갈등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헌팅톤의 ‘문명충돌’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정규군복을 입은 목사에 의존하는 군선교 활동보다는 비정규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통한 선교를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독교 교단 혹은 목사들의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 목사실업자 사태에서 이것은 혼란의 소지를 내재한다.

마지막으로 군대는 제도 못지않게 어떠한 목사들이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일부 민간목사들은 대대급에서 활동하는데 부작용도 많다. 군대는 사회보다 선포활동 못지않게 현존(presence)이 중요하다. 종교 다원주의 신학은 종교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종교도 절대진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군대는 교리로 종교의 진리와 거짓, 우와 열을 논할 수 없다. 다만 열매로 우리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서 반틸의 변증원리, “진리는 강하게 그러나 방법은 부드럽게”(fortiter in res, suaviter in modo)가 절대 요구된다.

17) 이 주제에 대하여는 필자의 “몽골기독교 역사와 선교전략” 「개혁신학과 교회」(고신대 신학대학원 논문집): 2002년 13호를 참조할 것.